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

조별 활동을 위한 8가지 관심 영역과 세부 주제 예시

포럼 참가자들은 신청 시 관심영역을 최대 4개 선택할 수 있으며, 포럼 사무국은 선호도를 고려하여 참가자들을 8개의 조에 배정합니다. 각 조는 관심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탐구·토론을 통해 미션 결과물(영상 혹은 PPT자료)을 제작하여 포럼 기간에 발표합니다. 세부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별로 배정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포럼 전 1차례 중간발표회를 통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영역 (Areas of interest)	배경 설명 및 세부 주제 예시 (Background & Topic samples)
전쟁과 평화, 그리고 교육	<div data-bbox="379 815 1449 115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6.25로 인해 학교 시설과 교사 및 학생의 희생이 있었으나 유네스코와 운크라는 전후 한국의 교육 재건에 크게 기여했음. 교육 내용 면에서는, 6.25 이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가안보와 호국 중심 교육에 따른 권위적이며 군사적인 요소가 오래 지속됐음. 그러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등에 힘입어 정치적, 경제적 조정이 아닌, 인간 존엄, 평등, 상호 존중 등의 보편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지적,도덕적 연대를 통해 평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음.</p> </div> <p>[세부 주제 예시] <u>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u> → 한국전쟁 후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교육의 역할을 살펴보자. ‘국제기구’ 영역과 연계하여 유네스코, 운크라(UNKRA, 유엔한국재건단) 등 논의 가능. <u>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u> → 전쟁의 부재가 평화일까? 지속가능하고 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이라는 이해와 글로벌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기구’ 영역과 연계하여 유네스코의 ESD, GCED 개념 논의 가능,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영역과 연계하여 MIL 교육 중요성 논의 가능.</p>
전쟁과 평화, 그리고 문화	<div data-bbox="379 1621 1449 191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전쟁은 창작과 표현에 제약을 가하고 문화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전쟁에 대한 기억은 영화와 음악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었음.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아프카니스탄 지배권력에 의해 문화유산이 파괴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유산이 위협에 처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음. 과거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과 내전 상황에서 혼란한 정국을 틈타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들도 있었음.</p> </div> <p>[세부 주제 예시] <u>전쟁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u></p>

	<p>→ 한국전쟁을 비롯한 전쟁의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음악, 영화, 문학작품 등) 사례를 살펴보자. 해외 참가자의 경우 자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을 것.</p> <p><u>전쟁 중 파괴되는 우리들의 문화유산</u></p> <p>→ 한국전쟁 중 파괴된 문화유산 및 도굴, ISIS의 이라크·시리아 세계유산 파괴, 아프가니스탄 지배권력에 의한 문화유산 파괴 사례 등 유산 파괴 사례를 찾아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예: 1954년 체결된 헤이그 협약)?</p>
<p>전쟁과 평화, 그리고 미디어정보리터 러시(MIL)</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전쟁의 첫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는 말이 있음. 전쟁에서는 전쟁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둘러싸고 가짜뉴스와 흑색 선전이 범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외가 아님. 온라인과 언론을 통한 ‘정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게 됐음. 팬더믹 이후 온/오프라인 상에서 근거가 없이 유통되는 차별과 혐오 메시지를 해석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p> </div> <p>[세부 주제 예시]</p> <p><u>한국전쟁 중 프로파간다와 가짜 뉴스</u></p> <p>→ 한국전쟁 중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을까? 있었다면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p> <p><u>전쟁·분쟁에 가짜 뉴스가 미치는 영향과 평화를 위한 MIL 역량</u></p> <p>→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유포 중인 가짜 뉴스 등 ‘정보 전쟁’ 사례를 살펴보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청년이 갖추어야 할 MIL 역량은 무엇일까?</p>
<p>전쟁과 평화, 그리고 환경파괴·기후변 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전쟁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침. 사회기반시설과 화학공장지대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전쟁 당시보다 이후에 더 많은 환경피해가 야기됨. 그 과정에서 토양이나 수질,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화학 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고, 군사적인 충돌 과정에서 종의 개체가 줄어들 수도 있음.</p> <p>거꾸로,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은 식량 불안정과 함께 기근, 주거 가능한 토지와 식수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외국인 혐오 등 차별을 심화시키거나, 정치·종교적 긴장 등의 요소와 결합해 폭력사태 등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처럼 환경은 전쟁의 또다른 피해자로서, 평화는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p> </div> <p>[세부 주제 예시]</p> <p><u>전쟁 중 일어나는 환경파괴와 그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일</u></p> <p>→ 한국전쟁 중에 어떠한 환경재해가 발생했을까? 이러한 환경재해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까?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방산산업이 자연과 기후변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p> <p><u>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또는 악화되는 갈등</u></p> <p>→ 기후변화로 인해 분쟁이 악화되었던 사례(예: 시리아 내전, ISIS의 침범, 남수단 분쟁)를 살펴보자. 전쟁/분쟁을 겪은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p>

<p>전쟁과 평화, 그리고 과학기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과학기술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놓기도 함. 전쟁은 당대 첨단 기술이 선보이는 경연장. 1차 세계대전에는 비행기, 화학무기, 탱크가 당시 기술의 총아로 등장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로켓, 제트기, 레이더, 야전 응급키트, 컴퓨터가 전시에 개발되어 전쟁에 뛰어들었음. 전쟁 경험은 과학입국이라는 말처럼, 그 나라의 과학기술이 부국강병이라는 목표에 복무하도록 국가 과학기술정책이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침.</p> <p>이와 달리, 과학기술이 이념과 인종갈등, 종교분쟁의 완화와 전면전 방지에 이바지한다는 주장도 있음. 정찰 드론이 인접국 국경을 넘나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인간과 과학기술의 공존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과학기술과 평화의 관계에 대한 좀더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함.</p> </div> <p>[세부 주제 예시]</p> <p><u>전쟁에서 사용되는 과학기술</u></p> <p>→ 한국전쟁에서 제트전투기와 헬리콥터가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되었고,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하는 등 당시의 첨단 과학기술이 총동원되었고 엄청난 대량의 무기가 투입되었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전쟁에서 사용될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 인간과 과학기술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p> <p><u>인공지능(AI) 시대의 전쟁과 분쟁</u></p> <p>→ AI를 활용한 미래 전쟁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AI를 통해 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까? 모두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p>
<p>전쟁과 평화, 그리고 국제기구의 역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6.25는 유엔 창설 후 유엔이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의 역할과 처음 맡게 된 전쟁이었음. 유엔과 유네스코는 전후 한국의 복구를 도왔고,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국제적 위상 면에서 괄목할 성취를 이룩하는 밑거름이 됨. 그러나 갈등조정이나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다자주의적 접근이 그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전쟁/분쟁 방지, 전후 재건,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과제의 해결 등을 위한 국제기구의 보다 실효성 있는 역할이 요구됨.</p> </div> <p>[세부 주제 예시]</p> <p><u>한국전쟁에서 유엔의 역할</u></p> <p>→ 한국전쟁에 유엔이 참전하게 된 계기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살펴보자. 이후 유엔의 평화유지군(PKO)은 어떤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p> <p><u>전쟁(한국전쟁 등) 후 국가 재건 시 국제기구의 역할</u></p> <p>→ 전쟁 후 다양한 국제기구가 어떤 식으로 나라의 재건을 지원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자. ‘교육’영역과 연계하여 유네스코, 운크라(UNKRA, 유엔한국재건단)의 지원 사례를 논의 가능.</p>
<p>전쟁과 평화, 그리고 사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전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참혹한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음. 전쟁에서는 교전에 참여하는 군경 병력외에도 민간인의 피해가 막대함. 6.25 전쟁의 경우 태평양전쟁 때보다 더 많은 폭탄이 사용되면서 엄청난 민간이 피해가 발생함. 여성들은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전후 미망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음. 이산가족에서 보듯, 한</p> </div>

	<p>가족이 뜻하지 않는 생이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음.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부역혐의 등을 곤란을 겪음. 전쟁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각종 인권유린 상황에 놓였으며 끝내 자국으로 귀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p> <p>[세부 주제 예시] <u>전쟁·분쟁으로 인한 대량학살과 부수적 피해</u> → 한국전쟁 중 얼마나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을까? 전쟁과 분쟁 시 발생하는 수많은 사상자와 인권 유린 사례를 살펴보자. 전쟁과 분쟁 중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청년들의 관점에서 얘기해보자</p> <p><u>전쟁과 젠더</u> → 전쟁 중에 어떠한 발생하는 젠더 이슈가 있을까? 전쟁/분쟁 중 일어난 여성의 인권 유린 사례를 살펴보고, 청년의 관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얘기해보자.</p>
<p>전쟁과 평화, 그리고 군사주의</p>	<p>2021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처음으로 연간 2조 달러(약 2500조원)를 넘어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유럽 여러나라들도 군사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중국에 이어일본·호주도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2021년 전 세계 군사비 2조 달러는 전 세계 79억 인구의 73일 치 식비(1인 하루 평균 3.69달러)에 맞먹는 수치임.</p> <p>또 군사적 긴장상태에서는 징병제로 인해 남성들이 군대에서 조직 생활의 첫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군사주의적, 남성중심적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p> <p>[세부 주제 예시] <u>한국전쟁 전후 세계 정세와 군사주의 돌아보기</u> → 한국전쟁이 발생하기까지 세계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이후 세계정세와 군사주의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p> <p><u>청년의 눈으로 보는 21세기 군사주의와 징병제</u> → 오늘날 군사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국별 징병제도는 어떻게 다를까? 군사주의와 징병제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청년의 시각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해보자.</p>